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발전용 연료전지(SOFC) 양산시설 두산퓨얼셀(주) 새만금투자 협약식

일시 | '21.12.24(금) 참석 | 새만금개발청·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두산퓨얼셀(주)



전북도는 지난 24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에 두산퓨얼셀(주)의 발전용 연료전지 양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새만금에 연료전지 양산 공장 건립

두산퓨얼셀, 전북도·새만금청 등과 대규모 투자협약

내년 4월 착공 인산형·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개발·생산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선도기업이자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두산퓨얼셀  
(주)이 새만금 국가산단에도 연료전지  
양산 공장을 건립한다.

특히, 이곳에서 발전 효율이 가장 좋  
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생산한다  
는 계획이어서 전북도가 아낌차게 추  
진 중인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  
금 국가산단에 두산퓨얼셀(주)의 발전  
용 연료전지 양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창모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 국회  
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제후석 두산퓨  
얼셀(주) 전무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두산퓨얼셀(주)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7만19,200㎡ 용지에 1,437억원을 투자해

2022년 4월 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2024년까지 90여명, 2026년까지 총 190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두산퓨얼셀(주)은 인산형 연료전지  
(PAFC, Phosphoric Acid Fuel Cell) 기술  
을 바탕으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급  
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수소 연료전지  
기업이다.

수소 경제의 급격한 시장 확대에 따  
라,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내 사업  
을 확장하기 위해 인산형 연료전지와  
함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를 개발해 생산할  
계획이다.

새만금에서 양산하게 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발전용 및 친환경 선박용  
전원으로 사용되며, 발전 효율이 연료  
전지 중 가장 높다.

이번 두산퓨얼셀(주) 투자는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이 조성 중에 있고,

수소 관련 입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  
한 시너지(동반상승) 효과 창출과 그  
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  
업들과의 협업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  
으로 전해졌다.

제후석 두산퓨얼셀(주) 전무는 "수소  
경제 내에서 다양한 신사업모델을 발  
굴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수소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전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두산퓨얼셀(주)의  
입주로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두산퓨얼셀(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가도록 도가 든든하게 뒷받침하  
겠다"고 밝혔다.

양창모 새만금개발청장 또한 "글로벌  
별 기업인 두산퓨얼셀(주)의 입주를 계  
기로 새만금 국가산단단지에 수소 생  
산·저장·운송·충전·활용 등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의 조기 구축을 위  
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30일부터 '코로나19 변이 확정 검사'

오미크론·델타 등  
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검사 가능해져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  
수)이 30일부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를 포함한 코로나19 주요변이 5종  
(알파·베타·감마·델타·오미크론)  
모두에 대한 확정 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오미크론 확정검사는 질병관  
리청에서 진행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서는 주요변이 4종(알파·베타·감  
마·델타) 검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  
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의  
심 검체 발생 시 질병관리청에 검체를  
송부해 추가 변이분석을 요청, 4~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30일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  
체 검사가 가능하며, 하루 내에 도내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필요한 기초지표를 신  
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 2일  
부터 주요변이 4종(알파·베타·감  
마·델타) 확정검사기관으로 인정받  
아 도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검체 중 변이 발생이 의심되는 해외입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검사 현장.

국자 및 집단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변  
이 분석을 실시해 12월 23일 기준 417  
건을 검사 완료. 델타변이 330건, 오미  
크론변이 20건을 검출했다.

유택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  
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1월부터 코로  
나19 비상근무체제를 24시간 지속적으  
로 운영하면서 도내 코로나19 전파 차  
단에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면서 "도  
민의 보건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기  
관으로서 코로나19 확진자 신속검사  
뿐 아니라, 오미크론을 포함한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해 도내 코로나19 전  
파 차단 및 방역대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유호상 기자

## 정부 남북교류협력 사전승인 공모 선정

전북도, 농업 2·축산 1건 등 총 3건  
"지속 가능 전북형 남북교류 추진할 것"

전북도는 통일부가 2021년 남북교  
류협력사업 사전승인 공모에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을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상 남  
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고, 북  
한과의 합의를 체결 이전에 남북교  
류협력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승인  
제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가 추진하  
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법령  
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총 3건(전  
북도 2, 김제시 1)으로 농업 분야 2  
건, 축산 분야 1건이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조례

로 규정된 전북도 남북교류협력위  
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발굴 사업,  
신규제안 사업 시·군 신청 사업을  
검토해 전북의 강점을 살릴 수 있  
는 사업을 선정·제출했다.

향후 북한과의 합의를 보완 시 실  
제사업 시행 및 통일부 남북협력기  
금과 북수방문증명서 신청이 가능  
해졌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기계, 농자재 지원(황  
해남도 신천군), 폐지공장 축사 신  
축(평안남도 남포시) 지원을 통해  
남북 간 공동 발전과 민족 간 동질  
성 회복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  
권대회에 북한태권도 시범단을 초  
청해, 이후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  
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개선 미중용  
역할을 해왔다.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추후 교  
류 재개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  
고, 북한과 가능한 교류 및 단기적  
으로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  
속 가능한 전북형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좀 더 낮게,  
좀 더 가까이!

민생을 살피고, 군민에게 좀 더 낮게·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의의회  
MUJU-GUN COUNCIL